

이제는 인천입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인천뿐입니다

2조 4천억원 경제효과!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

3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25 APEC정상회의 “인천 유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INCHEON MONTHLY MAGAZINE

인천

2024.06 JUNE

## 굿모닝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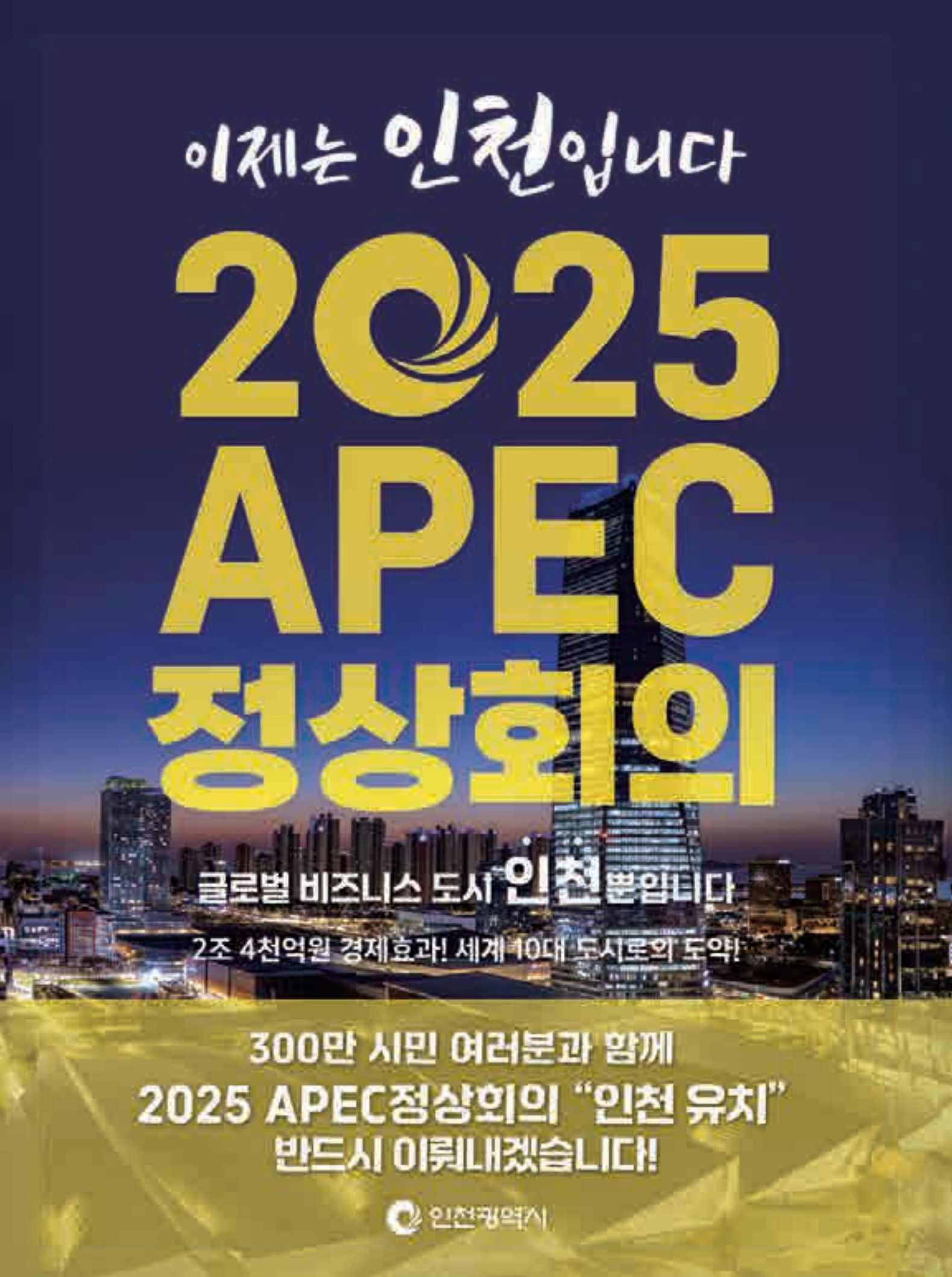
JUNE 2024

한반도를 지킨 호국보훈의 도시에서

미래를 밝히는 세계 평화의 도시로

| 7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4.06 JUNE

| 7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 굿모닝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6

06

JUNE 2024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낮과 밤



## 세계 평화의 도시를 밝히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불빛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밤이 찬란히 빛납니다. 해가 기울자 자유수호의 탑을 오르는 웅장한 계단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한반도를 수호한 역사가 미디어파사드로 펼쳐집니다.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기념관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야경 명소로 변신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끍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인천을 ‘세계 평화의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천에서 전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모은다는 구상입니다. 아픔을 딛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와 함께. 이제 인천이 역사를 깨워 바로 세웁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수봉공원 현충탑

## 인천은 [ 평화 ] 다



글·사진 홍승훈 사진작가

월미도와 인천대공원에 앞서 수봉공원이 있었다. 오늘날 인천의 유명 관광지들이 개발되기 전, 수봉공원은 자유공원과 함께 인천 사람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휴식처였다. 수봉공원에 오르면 웬지 모를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이유는 이곳에 한반도 평화의 상징물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자유공원에 있던 충훈탑이 서울로 옮겨졌다. 인천에도 충훈탑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같은 해 4월 수봉산 정상에 현충탑이 섰다. 이후 이곳은 매년 6월 호국영령을 기리는 인천의 대표 현충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도 재일학도의 용군 참전기념비와 인천지구 전적기념비, 무공수훈자 공적비 등도 세워져 6·25전쟁 당시의 숭고한 희생을 전파하고 있다. 2023년, 인천은 ‘세계 평화의 도시’를 천명했다.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은 한 시대의 일로 끝나지 않기에 누군가 이어가야 했고, 인천이 선두를 자처한 것이다. 휘몰아치는 정세 속에 쉬운 길일 리 없지만,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 도시 인천의 담대한 걸음이 분명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게 되리라 믿는다.

### JUNE 2024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66



굿모닝인천 웹진



오디오북 듣기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4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강성욱(대변인)

**편집주간** 한영진(홍보기획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임학현·최준근·유승현

**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04	<b>인천 미소</b> 남녀노소 모두의 <굿모닝인천> 외	38	<b>문화 줌 인</b> 인천학도의용대가
05	<b>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b> 어느 날 아침, <굿모닝인천>	40	<b>문화 캘린더</b> 요기조기 음악회 외
06	<b>기획 특집</b> 글로벌 토폰 시티, 인천	42	<b>시민의 시선</b> 반려동물
10	<b>인천에서 인천으로</b> 시민 행복 인터뷰	44	<b>이미지 뉴스</b> 인품사업
14	<b>우리는, 인천</b>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여정	46	<b>시정 뉴스</b> 2년 연속 혁신 평가 1위, 대통령 표창 쾌거 외
16	<b>화보</b> 1883 인천맥강파티	50	<b>의정 뉴스</b> 해양 생태계를 선도하는 인천을 위해 외
20	<b>요즘, 인천</b> 요기조기 음악회	52	<b>컬러링 인천</b> 영흥도 스카이워크
24	<b>호국보훈의 달 특집</b> DMZ 평화의 길을 걷다	54	<b>인포 박스</b> 6월은 ‘우현 고유섭’의 달입니다 외
28	<b>굿인이 만난 사람</b> 반기문 전 <sup>前</sup> UN 사무총장	57	<b>땅 이름 이야기</b> 계양 <sup>桂陽</sup>
32	<b>환경 인포그래픽</b> 탄소중립	58	<b>시민 행복 메시지</b> 호국보훈의 달에 되새겨보는 ‘평화’
34	<b>내가 사랑하는 인천</b> 유동현 전 <sup>前</sup> 인천시립박물관장	59	<b>인천사진관</b> 해양경찰 부부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http://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홍보기획관실 032-440-8302, 8304~6



#### 호국보훈의 달, 세계 평화 도시 인천을 노래합니다.

<굿모닝인천>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화 DMZ 평화의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구 상에서 한반도에만 있는 금단의 땅 DMZ(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시정특집으로는 ‘글로벌 토폰 시티’ 진입을 위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에 나선 우리 시의 경쟁력과 투자플랜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인천 사람이라서 행복한’ 시민들을 만나 행복 코드를 찾아보고, 시민들이 꿈꾸는 인천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또 최근 70팀의 뮤직 앰버서더가 참여해 발대식을 가진 ‘요기조기 음악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는 현장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맥강파티’의 이색 풍경도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유동현 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동구 송림동, 사라진 혈떡고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세계 평화 도시 인천 곳곳의 모습을 <굿모닝인천>에서 만나보세요.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남녀노소 모두의 <굿모닝인천>

인천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섬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또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실버들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해 보다 폭넓은 독자들과 호흡하는 <굿모닝인천>을 만들어주세요.

이진형 웅진군 자원으로

도시의 발전상을 책 속에

매월 <굿모닝인천>을 구독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도 의미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인천의 미래 모습, 눈부신 청사진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3연륙교와 영종도~신도 연도교 조성 현황 등 앞으로 확충될 시설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박중수 중구 운서로

인천을 알아가는 길잡이

파주에서 영종국제도시로 이사 온 새내기 인천 사람입니다.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귀한 지역 소식지가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을 깊이 알아가려 합니다. 300만 인구가 함께 100조 경제 시대를 여는 인천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김하영 중구 하늘달빛로

도시의 매력을 더 먼 곳까지

천안에서 <굿모닝인천>을 챙겨 보고 있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잘 몰랐던 인천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부분 인천 지역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교적 거리가 먼 주요 도시 등에도 전해진다면 인천 관광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화 충청남도 천안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 <굿모닝인천>

글 장기영(미추홀구 소성로)

아내와 첫째 아들이 일본으로 5일간의 여행을 떠난 이튿날 아침, 둘째 윤호와 소박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등교 준비를 하는 윤호를 기다리던 중 거실 책장에 놓인 <굿모닝인천>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즐겨 본다던 바로 그 <굿모닝인천>이었습니다. 표지를 장식한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여느 어린이집 풍경을 담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귀하디귀한 다섯쌍둥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인기척에 옆을 보니 어느새 윤호도 곁으로 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빠, 근데 왜 다섯쌍둥이가 대한민국을 행복으로 물들여요?”

“요즘엔 출생률이 낮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함께 기뻐해 주거든. 그런데 다섯 명이 나 되니 행복도 다섯 배가 되지 않겠어? 게다가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래~”

“네? 이 아이들이 34년 동안 엄마 배 속에 있었다고요?”

윤호의 엉뚱한 질문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굿모닝인천>은 부자<sup>父子</sup>의 허전한 아침을 웃음으로 채워주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강화 석모도의 600년 된 향나무 이야기, 새롭게 탄생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인천에 거주하는 글로벌 가족의 사연 등을 통해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굿모닝인천> 마니아를 기다립니다!

매월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코너에 소개될 시민과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추억, 고마움 등 어떠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Global TOP 10 City INCHEON



- Please Scan the QR code  
- 请扫描二维码。  
- QRコードをスキャンしてください。  
- Пожалуйста, от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 QUÉT MÃ QR BẰNG CAMERA ĐTD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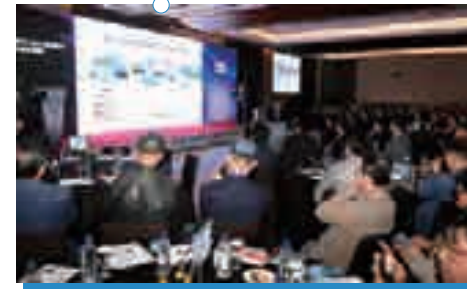
## 세계 10대 도시 인천 빛이 올랐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66

대한민국 근대화와 세계화의 중심 인천은, '인천 개항 3.0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수도권 2,700만 시민의 시장성, 700만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무궁무진한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발판 삼아, 이제는 글로벌 톱텐으로 비상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

99



유정복 시장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투자 최적지로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진입을 위한 빌드업 Build-up이 한창이다. 출발점은 지난 5월 7일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 유치설명회'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외 80여 개 투자 유치 대상 기업 관계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귀를 쫓긋 세웠다.

우리 시는 이날 필리핀 LCS그룹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려아연 등 투자 의향 기업과 투자 유치 협력 기관 등 12개 기업 및 기관과 투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설명회 이후, 유정복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모나코와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포물러 원(F1) 유치 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글로벌 톱텐 시티로 향하는 우리 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확장판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범위를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한 프로젝트다. 공약 목표는 유지하되 투자 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힌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 그리고 강화와 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곳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 인천은 투자의 최적지

우리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도시다.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수도권 배후 시장과 700만 재외동포를 품고 있다. 경제 규모로는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 2위다. 200여 개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15개의 국제기구도 입주해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집적지인 송도와 항공 물류의 중심지인 영종,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 청라 등 국내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5개인 외국 대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잘 갖춰진 산업 인프라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지방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인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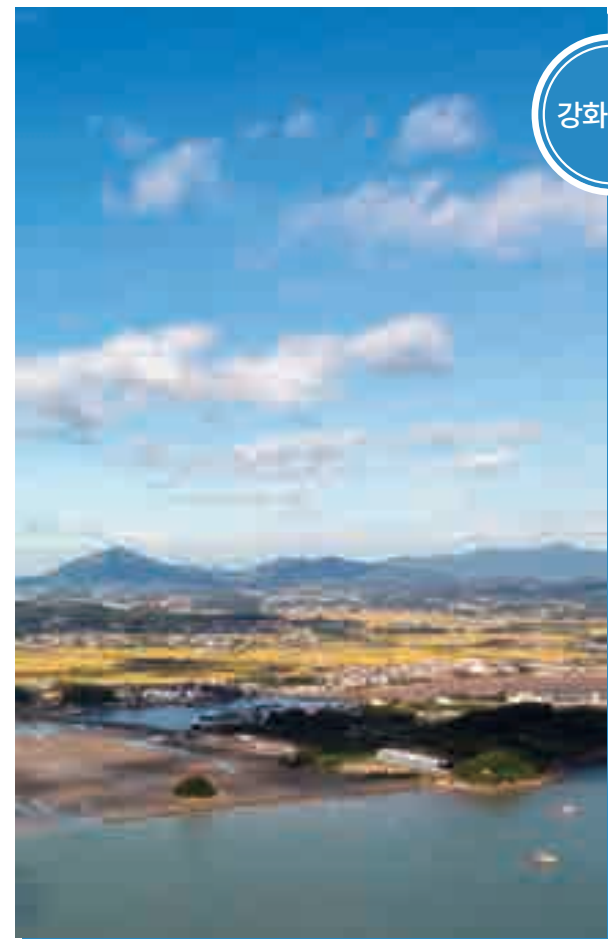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투자의 적지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매력적인 투자처인 인천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특설 무대다.

# Global TOP 10 City INCHEON

한눈에 보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마스터플랜

## 세계 10대 도시 인천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특설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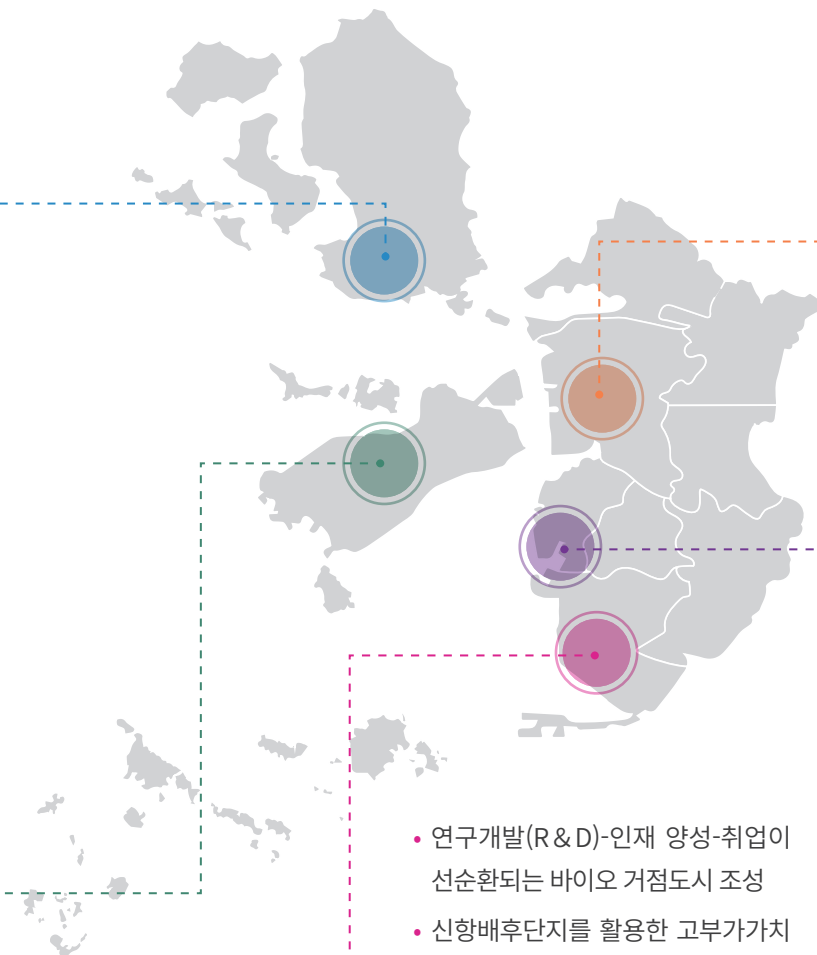
### 강화 남단

- 그린바이오 연관 산업을 집적시켜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거점 조성
- 강화 바다가 가진 치유 능력을 활용한 국제 수준의 해양치유지구와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
- 강화의 물리적 접근성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 사업으로 추진(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 예정으로,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간 대교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 중)



### 영종

- 360만㎡(110만 평)의 제3 유보지에 바이오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스마트 물류가 어우러진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 조성
- 만정낙시터를 가진 특성을 활용해 복합형 여가 위락 시설 피싱 콤플렉스 조성
- 한상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 글로벌 웰컴 빌리지(중산마린시티)를 조성해 글로벌 정주 여건 마련
-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 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조성
- 거잠포에 해양레저지구를 조성, 인공 해변과 스포츠 레저 시설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해양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
- 용유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 청라



- 다양한 금융기관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청라 특화금융집적단지 조성. 인근 국제금융단지와 더불어 스타필드, 의료복합타운 등을 연계해 활성화된 금융축 형성
-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탄소중립 전초기지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드론인증센터,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 송도



- 연구개발(R&D)-인재 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도시 조성
- 신항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 조성

### 내항 일대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 업무·산업 경제 특화 도시로 개발
- 글로벌 최대 규모의 문화 복합 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인천 시민이라서 행복합니다

300만, 100조, 2, 그리고 1은 행복 숫자입니다. 민선 8기 2주년, 주민등록 인구 300만을 돌파하고, 100조 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나아갑니다. 그 끝엔 제1 행복도시 인천이 오롯이 반깁니다.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꿈꾸며, 시민이 이루는 인천. “인천 시민이라서, 난 행복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300만

인천 시민이라서 행복한, 김다환(왼쪽) 이민지 님

이 순간 빛나는,  
‘300만 인천 시민’의 삶



취재 영상 보기

100조

바야흐로 100조  
경제시대가  
도래했다.  
그 동력은 300만  
인천 시민이다.



## 2 바이오산업도 인천이다!

“두근두근, 새로운 내일이 열린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도시, 인천은 제 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김지영(48·송도국제도시 직장인) 인천 땅에 발 딛는 순간, 더 큰 세상이 펼쳐진다. 김지영 씨는 바이오산업 종사자로, 지난달 회사가 충북 청주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처음엔 ‘왜, 인천인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하지만 도시를 차츰 알아가면서 가슴에 강렬한 느낌표가 찍혔다. ‘바이오산업도 인천이다!’ ‘공항과 항만을 품은 최적의 비즈니스 도시, 인천에서 회사와 함께 저도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꿈꾸고 이루고 도전하는 삶, 인천을 만나서 다행이다. 행복하다.

## 3 행정 체제 개편, ‘행복 지도’ 함께 그려요~

“내 고향 인천, 그 따스한 품에서 세 아이와 꿈을 키우고 실현하며 ‘행복 지도’를 그릴 거예요.”

최지혜(43·서구 봉오대로) 인천은 어제이자 오늘이고 내일이다. 그 안에서 나고 자라 아들 셋을 둔 엄마로 살아가는 지금, 행복하다. 지난해 서구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행정 체제 개편에 관심을 두게 됐다. 현재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는 2026년 7월을 기점으로 인천의 행복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서구의 인구는 무려 60만 명에 이르러요.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되면 시민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겁니다.” 세 아이와 함께 열어가는 인천의 내일은 장밋빛이다.

## 4 ‘1억+i dream’, 행복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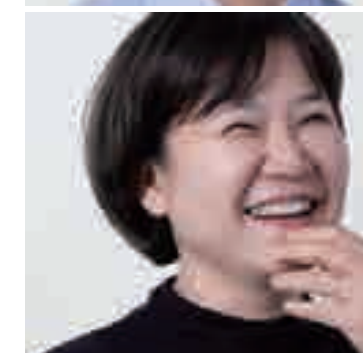
“아이들이 곧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억+i dream’이 있어, 세상의 빛을 볼 첫아이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정소화(34·연수구 원인재로) 세상의 모든 아이는 꿈이고 희망이다.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을 흔든 인천발 출생 정책 ‘1억+아이드림<sup>i+dream</sup>’. 정소화 씨는 ‘깨비’라는 태명의 소중한 생명을 품은 예비 엄마. 현실적인 고민도 있지만, 시를 믿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인천시가 지금처럼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라요. 그 래야 ‘깨비’의 동생도 생길 수 있겠죠?” 대한민국 집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1억+i dream, ‘인천에서 태어나서 행복해요’.

## 1 성남에서 인천까지, 이제 GTX로

“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한 지 15년째, 직원들과 꿈을 현실로 일궈온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내일은 그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한재문(49·송도국제도시 사업가) 인천이 일터이고 집은 경기도 성남이다. 그 먼 길을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지 15년, 쉽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E 3개 노선이 인천과 연결된다는 소식이 누구보다 반갑다. 특히 D 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을 지나 그가 사는 경기 남부까지 잇는 노선이라 기다려진다.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와 살고 싶은 소망도 있다. 삶과 일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인천만 한 도시가 없기 때문이다.



3  
1 4  
2

역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뿔어내는  
뜨거운 숨결이다.  
300만 인천,  
오늘도 우리는 힘껏  
부딪히고 나아가며  
새 역사를 연다.

대한민국

제 2 경제도시 인천

제 1 행복도시 인천



5 6  
7 8



5 인천대교 달려 세계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 밟 딛는 우리 땅,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도시. 인천 시민이라서 자랑스롭습니다.”  
**박수현(47·중구 논골길)** 바다와 하늘 사이, 영종국제도시가 그의 ‘집’이다.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 살다, 가속도 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섬 아닌 섬 영종도에 머무른 지 벌써 12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산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지역 주민으로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지난다. 오늘도 바다 걸 그 길을 달리며 사람과 마음, 세상을 잇는다.

6 ‘인천 I-패스’ 제감하는 혜택, 부자 된 기분

“교통비부터 알뜰살뜰 아껴야 잘 살죠. 인천 안에서 마음도 부자로 살아갈 거예요.”  
**이민지(32·계양구 새벌로)** 맞벌이로 알뜰살뜰 알뜰살뜰 신혼 생활을 꾸리고 있다. 부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고정적인 지출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다렸다.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인천 I-패스’.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혜택을 몸소 체험합니다. 사용한 교통비가 통장에 다시 차곡차곡 쌓인다니 부자 된 기분이에요. 시민 편에서 추진하는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7 청년, 인천과 함께 성장하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으로 당당히 일어설 겁니다. 희망이 있어 행복합니다.”  
**김다환(28·서구 원당대로)** 잠시 쉼표를 찍고 구직 활동 중이다. 때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희망을 키우고 있다. 우리 시와 서구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소식도 반갑다. “‘청년카페’에 참여할 생각이예요. 일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대가 큼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조각이 되어 인천의 꿈을 함께 맞춰 나간다. 청년은 곧 우리의 내일이다.

8 이 순간 빛나는, ‘300만 인천 시민’의 삶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300만 인천 시민’의 일원이 됐습니다. 행복, 이제 시작입니다.”  
**김정애(66·계양구 도두리로)** 김정애 씨는 300만 인천 시민 중 한 사람이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지난해 아이들이 사는 인천으로 왔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 뿌리내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나 행복은 작지만 빛나는 것. 강아지 두 마리와 매일 ‘계양꽃마루’ 길을 산책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빛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지 않은가. 그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9 다채로운 빛과 색의 모자이크

“우리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 인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라서 행복하답니다.”  
**송다니엘(7·서구 봉오대로)** 인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8만 1,000여 명. 모두가 인천 사람이다. 하얀 피부에 암갈색 눈동자가 빛나는 송다니엘 군은 우리와 다른 듯 닮았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러시아에서 왔다. 조금은 낯선 그의 가족을 사람들은 오랜 친구처럼 따스하게 품어 준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인천’이다. 다채로운 빛과 색이 어우러진 모자이크. 그 안에 오롯이 반짝이는 ‘제1 행복도시’가 있다.

10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희망을 품고 노력하면 다 이루는 도시, 인천. 그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웅권(45·부평구 이규보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다. 박웅권 씨는 서구 가좌동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거둬들이는 삶이 소중하다.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에 기대가 큼니다. 택배 시장 평균 가격 대비 50% 절감된 가격으로 요금을 지원해 주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 그 꿈으로 오늘도 하루를 열어나간다.

11 재물포 르네상스 홍보, 시민 힘으로!

“인천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행복해요. 바다와 함께하는 순간은 더 느리게 가요.”  
**유향연(50·중구 신포로)** 인천 토박이로 중구 개항장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인천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오래된 미래 도시’. 그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원도심 우리 동네는 여전히 인천의 중심입니다.” 최근엔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리는 시민 홍보단의 일원이 됐다. “원도심이 활력을 찾고 달힌 바다가 온전히 품을 열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에서 바다로부터 시작된, 인천의 꿈이 빛난다.

12 행복은 흐르는 물처럼

“바다의 도시 인천. 도심에 하천이 흐르고, 바닷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이정균(47·연수구 원인재로)** 그의 오른손은 남과 다르다. 스무 살에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중증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스스로 끊임없이 엄지척하고 손가락 하트도 잘 그린다.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았다. 요즘은 연수구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4시간 일하고 있다. ‘내 고장 하천 살리기’ 봉사활동에도 열성을 다한다. 인천 5대 하천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데 진심이다. 도심의 물줄기가 바다로 흐르듯 그의 앞날에도 행복한 날들이 유유히 펼쳐지기를 바란다.

66  
‘우리는, 인천’, 깨어 있는 꿈,  
행동하는 혁신, 공감하는 소통으로  
변화의 성과를 이루어 간다.  
“인천 사람이라서, 난 행복합니다.  
99



9 10  
11 12





# 2025 APEC INCHEON

인천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모든 준비는 끝나고, 선택만이 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이다.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도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인천뿐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며, 성공을 확신한다. 2조 4,000억 원 경제 효과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 ‘인천을 선택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시 공보담당관실



- Please Scan the QR code  
- 请扫描二维码。  
- QRコードをスキャンしてください。  
- Пожалуйста, от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 QUÉT MÃ QR BẰNG CAMERA ĐTDĐ

시민이 꿈꾸면 인천시가 반드시 이뤄낸다! 지난해 6월 16일 열린 ‘2023 제4회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결의에 찬 유정복 시장과 인천 시민들



66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간 지역 경제 협력체로, APEC 회원국은 우리나라 무역 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유정복 시장  
99



유정복 시장이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다짐했다. 빗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다.



- 1 — 의지를 실현할 당당한 첫걸음. 유정복 시장은 해외 출장 첫 일정에서 APEC 사무총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 2 — 300만 인천 시민의 힘으로, 꿈꾸고 이루고 도전한다. 시민의 염원을 담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100만 서명부
- 3 — 인천앓돌 광장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지원하는 조형물이 제막됐다. 시민의 가슴에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소망이 피어났다.



유정복 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의 밝은 표정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천’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제,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2025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APEC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이다. 2조 4,000억 원 경제 효과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 ‘인천을 선택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는 6월 7일 시도별 유치 계획 설명회 개최 후, 6월 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5 APEC 인천’ 300만 인천 시민과 반드시 이뤄냅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여정

### 2022

- 3. 25.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유치 본격 돌입
- 9. 16. 유정복 시장, 해외 출장 첫 일정에서 APEC 사무총장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사 표명
- 10. 8. 친환경 자전거 축제 ‘2022 송도 슬로우 롤’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염원
- 12. 1. 인천앓돌에 ‘2025 APEC Incheon’ 조형물 제막
- 12. 5. ‘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 출범

### 2023

- 5~8. APEC 정상회의,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
- 6. 13. 인천 청년의 힘을 하나로, ‘인천 글로벌 서포터즈’ 발족
- 7. 6. ‘APEC 회원국 주한 외국공관 초청 간담회’ 개최
- 8. 10. 인천 100여 단체,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지 선언
- 8. 29. 300만 인천 시민의 힘으로, 100만 서명부 전달
- 10. 24. ‘글로벌 인천 포럼’서 APEC의 비전과 인천 유치 전략 공유

### 2024

- 2. 23. 인천유나이티드FC의 새 유니폼에 ‘2025 APEC Incheon’ 각인
- 4. 15. 유정복 시장 외교부 조태열 장관과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관련 면담
- 4. 19. 인천시,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출사표
- 5. 7. 인천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
- 5. 11. 인천유나이티드FC 응원단과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다짐
- 5. 22. 현장 실사에서 APEC 정상회의 최적지 증명
- 5. 27. 인천시, APEC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이 넘실대는 내항, 지난해 가을 시민들에게 꿈을 활짝 연 인천항에 1만여 명의 세계인이 찾아들었습니다. 상상플랫폼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로 일대가 들쭉였습니다. 한낮부터 밤까지, '인천맥강파티'가 남긴 여운과 감동은 5월 초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웠습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디렉터

# 1883 INCHON

© 인천관광공사

- 1 — 인천의 닭강정과 맥주의 만남  
2, 3 — 지난 5월 25일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1883 인천맥강파티'에 1만여 명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 이모저모

컨셉	인천의 맥주와 닭강정의 만남. 인천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개항 이야기를 버무린 인천만의 글로벌 축제
방문객	중국·대만·태국·베트남·미국 등 10여개국에서 온 외국인과 재외동포
소비된 맥강	맥주 1만캔과 닭강정 1만 인분
닭강정 제공	신포시장과 신기시장의 상인들 협조
프로그램	맥강파티, 1883 야시장, K-팝 등 공연, 불꽃 드론쇼

McGang  
Party



15:00

시원한 바닷바람, 매콤달콤한 닭강정과 시원한 맥주, 어깨를 들썩이게 할 K-팝 공연. 인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닷가 맥강파티가 1만여 명의 세계시민들을 움직였습니다. '맥강'을 즐기러 오는 설렘과 '건배'를 외치는 소리로 한낮부터 인천항이 시끌벅적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상플랫폼'과 부둣가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초대형 야외 벽화 '사일로 벽화'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뚝뚝입니다. 인천항의 두근거리는 변신과 인천만의 콘텐츠를 버무린 글로벌 축제, 비로소 성공 예감이 듭니다.





1

**McGang**  
**Party**


17:00

초여름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식혀 주자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야외광장 안쪽에 들어선 ‘1883 야시장’에선 맛있는 냄새가 술술 풍깁니다. 지역 상인들이 18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인천의 손맛’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이뤄낸 축제입니다.



2

- 1 — ‘인천맥강’의 매력에 빠진 세계시민들
- 2 — 인천항을 밝힌 ‘1883 야시장’
- 3 — ‘1883 야시장’으로 변신한 인천항에서 만난 베트남 유학생들



3

**McGang**  
**Party**


18:00

“Xin chào(안녕하세요).” “Good evening.” 다양한 언어와 웃음 소리가 초여름의 밤공기를 가릅니다. ‘1883 야시장’을 즐기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천 여행의 마지막 저녁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엽서 뒷면에 그려진 여행지처럼, 꿈속에 바라던 타국의 어느 도시처럼, 글로벌 도시 인천이 세계인들의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4

© 인천관광공사



21:00

- 4 — 파티의 여운과 감동을 만끽하는 세계시민들
- 5 — 밤하늘을 수놓은 빛의 향연, ‘불꽃 드론쇼’로 밤하늘에 새겨진 ‘올 나이트 인천’

밤이 깊어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인천항의 밤을 밝힌 ‘불꽃 드론쇼’, 오월의 밤하늘에 현란하고 다채로운 색과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가장 뜨겁고 빛나는 순간을 위해 모두가 힘차게 달려온 밤입니다. 그 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얼굴색은 달라도, 초여름밤의 축제가 남긴 여운과 감동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될 축제를 내년에도 약속합니다.

5







##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우리는 인천!  
요기조기 음악회’ 팡파르



민선 8기 인천시 2주년의 길목, 도시의 풍경과 문화가 달라졌다. 신선한 바람과 화창한 햇살을 무대 삼아 도심 곳곳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마음먹고 길을 나서지 않아도, 비싼 표를 구입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향한 우리 시만의 프로젝트가 시민, 예술인들의 환대 속에서 성대한 팡파르를 울렸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유정복 인천시장과 아토 앙상블. 유 시장은 70팀의 음악인들 한 명 한 명 위촉장을 전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요기조기 찾아가는 음악회, 11월까지 300회

보드라운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신 지난 5월 3일,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을 꽃 피울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물들였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인천’을 향한 우리 시의 프로젝트 ‘우리는 인천! 요기조기 음악회’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뮤직 앰버서더 70팀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것.

이날 발대식을 함께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70팀의 뮤직 앰버서더 모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응원과 부탁의 말을 전했다.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 뜻으로 자리한 음악인들은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요기조기 음악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시의 풍경과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인천만의 세심한 문화예술 사업이다. 오는 11월까지 300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도서관·박물관·전통시장과 주요 관광명소 등이 음악과 일상이 만나는 야외무대로 변신한다.







1, 2 — 음악이 있는 풍경,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9일 송도 아트포레에서 열린  
요기조기 음악회  
3 —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찾아가 요기조기 음악회



## 음악이 있는 풍경, 새로운 일상

요기조기 음악회 무대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단비다. “무대에 설 수 있단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운이 나죠.”(서은지, 엘렉톤 연주자), “일상 속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향한 여정에 제 음악을 보탬 수 있다니 뿌듯합니다.”(박현우, 싱어송라이터) 인천의 뮤직 앰버서더들은 저마다의 음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송도아트포레, 부평문화의거리, 상상플랫폼, 청라호수공원... 신선한 바람과 화창한 햇살을 무대로, 빌딩 숲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선율에 시민들도 신나게 음악을 즐겼다. 음악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마음을 울린다. 음악이 있으면 발걸음이 리듬이 된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에서는 365일 감동이 넘실거린다.

## MINI INTERVIEW

### 요기조기 음악회 뮤직 앰버서더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인천, 요기조기 음악회의 뮤직 앰버서더 70팀이 시민 곁을 찾아갑니다.

요기조기 음악회 인스타그램,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Q1 팔막한 자기소개 Q2 각오 한 마디 Q3 예술가들이 꿈꾸는 인천의 미래 모습



박현우 싱어송라이터

A1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젊은 아티스트. 일렉 기타 연주와 시적인 가사, 희망과 긍정의 감성으로 무대를 물들이는 싱어송라이터. A2 부평문화재단과 인천음악창작소와 함께 협업한 싱글이 6월 21일 발매될 예정이에요. 요기조기 음악회에서도 공연했던 ‘상실을 깨달아’라는 트랙입니다. 인천 방방곡곡 찾아가 들려드릴게요. A3 일상 속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아토 앙상블 3인조 현악 앙상블

A1 인천예고 동문으로 만난 클래식 연주 단체. ‘아토’는 순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 관객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3인조 현악 앙상블. A2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곡들 위주로 선곡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연주를 기대하세요. A3 “문화가 도시를 바꾼다!” 예술가의 노력과 시민의 참여, 시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인천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서은지 엘렉톤 연주자

A1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보며 음악가의 꿈을 키운 ‘본투비 음악인’. 낯선 악기, 엘렉톤으로 신비롭고 깊은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주자. A2 엘렉톤은 3단 건반으로 1인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다양한 편곡으로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A3 무대에 설 수 있단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운이 납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음악인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도시를 꿈꿉니다.



지구상에서 한반도에만 있는 금단의 땅. 4km 폭으로 한반도 중간을 240km 가로지르는 이 땅을 우리는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라고 부른다.

DMZ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씩 남북 사이에 설정된 완충지대다.

70년 넘게 일반인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됐던 DMZ 일원에서 최근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DMZ 평화의 길’이란 이름으로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해 보는 여정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 DMZ

## 평화의 길을 걷다



‘호국보훈의 달’ 특집

- 1 — 6·25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설치돼 있는 한반도 형상의 조형물
- 2 — 광귀순 해설사가 투어 참가자에게 북녘땅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 3 — 6·25참전용사 기념공원 입구
- 4 — 참전용사 추모비에서 헌화를 하는 투어 참가자들



### 달다, 만나다, 이어가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전날 내린 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024년의 첫 강화 지역 DMZ 탐방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봄날의 아침에 시작됐다.

5월 16일 아침 강화전쟁박물관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이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날은 ‘DMZ 평화의 길’ 강화 테마 노선이 개방된 날이다.

지난 2021년 열린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해 보는 안보 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의 경우, 57회에 걸쳐 726명이 함께했다. 올해에는 15명이 첫 발자국을 찍었다.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DMZ 평화의 길’은 모두 10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강화는 국난 극복의 피난처에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출발점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 헌화로 시작된 평화의 여정

오전 10시 강화전쟁박물관을 출발한 버스는 몇 분 걸리지 않아 6·25 참전용사기념공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공원 입구에 이르자 굳은 표정의 군인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공원 안쪽에 설치된 초소에서조차 모형 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마치 영화속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공원 중앙,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모인 투어 참가자들은 묵념과 헌화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렸다.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가는 단어 ‘분단’,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여정은 이처럼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 지척이 천리, 가깝고도 먼 땅

1.8km, 북한까지의 거리다. 강화평화전망대는 전망대 중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다.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곳도 강화평화전망대다. 맨눈으로도 북녘땅을 볼 수 있지만 3층 조망실에서 망원경을 들이대면 강 건너 연백평야와 개성 송악산의 능선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다.

하지만 ‘지척이 천리’라 했던가. 전망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광귀순 해설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 ‘DMZ 평화의 길’ 강화테마 노선만의 미션

## 닿다, 만나다, 이어가다

‘DMZ 평화의 길’ 미션에 참여하면 투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미션은 스탬프 미션(닿다)을 비롯해 평화의 길에서 만난 흔적들, 평화를 사진으로 간직하는 DMZ평화앨범 미션(만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등을 작성하는 미션(이어가다) 등으로 짜여 있다. 미션 참여자에게는 기프트콘 등 상품을 준다.



- 1 — 강화평화전망대 1층 통일염원소에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있다.  
2 —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땅

“이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북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는 물 위의 DMZ는 태산보다 높은 장벽이었다.

“수시로 찾아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하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을 조금 이나마 씻어내면 좋으련만...” 조망실 관계자의 말이 깊은 울림을 남긴다. 1층 통일염원소에 빼곡히 붙어 있는 포스트잇의 문구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산가족, 실향민의 한뼘을 덧칠한 강화평화전망대. 아직은 평화의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분단의 상징물이었다.

## 투어의 백미, 해안철책선 코스

전망대에 이어 도착한 곳은 군사시설인 의두분초와 전적지인 의두돈대다. 여기서부터는 해안 철책로 1.5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한다. 그동안 민간이 접근할 수 없었던 코스다. 의두돈대에는 조선시대의 군사시설과 현재의 군사시설이 공존한다. 역시 나라를 지키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두돈대에서는 지난 1996년 북한에서 홍수로 떠내려온 황소가 해병대원들에게 구출되기까지 반년 가까이 혼자 살았다는 유도도 한눈에 들어온다. 남북평화를 가져다줄 거란 기대에 ‘평화의 소’라는 이름이 붙은 이 황소는 제주도에서 온 소를 신부로 맞아 송아지를 낳기도 했다. 투어의 백미는 강 건너 북녘땅을 보며 걷는 해안철책선 답사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디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철책선을 따라 걷다 보면 전설처럼 전해 내

려오는 귀순 사례 지점에 이른다. 1996년 7월 11일 북한 주민 최모 씨가 자전거 튜브 3개에 의지해 조강을 건너 귀순했다는 곳이다. 귀순 사례 지점에서 보니 북녘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

## 디아스포라의 섬, 교동도

6·25 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피란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휴전선이 그어졌다. 교동도에 등지를 틀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생계를 위해 좌판을 벌였다.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는 실향민들의 전령이자 벗이었다. 고향의 흙을 입안 가득 가져와 지은 제비집에는 고향 땅에 남은 가족의 얼굴이 있었다. 좌판을 벌였던 곳은 대룡시장으로 거듭나 관광명소가 됐다. 분단이 낳은 디아스포라의 삶은 이렇게 이어졌다.

‘DMZ 평화의 길’은 북한 땅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 보는 접경지이자 최전방 섬인 교동도에서 막을 내린다. 참가자들은 대룡시장에서 레트로 감성의 시간여행을 즐기고, 평화와 희망의 염원을 담아 조성된 화개정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투어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신선하고 의미 있는 투어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강경한(49·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씨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던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이 각인돼 제대 후에도 안보관광 코스를 즐겨 찾으며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철책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화개정원에 설치된 조형물(위)  
대룡시장 풍경(아래)

## ‘DMZ 평화의 길’ 강화테마 노선

운영 기간 5월 16일~11월 30일(7~8월 휴서기 미운영)

출발 시간 목·금·토·일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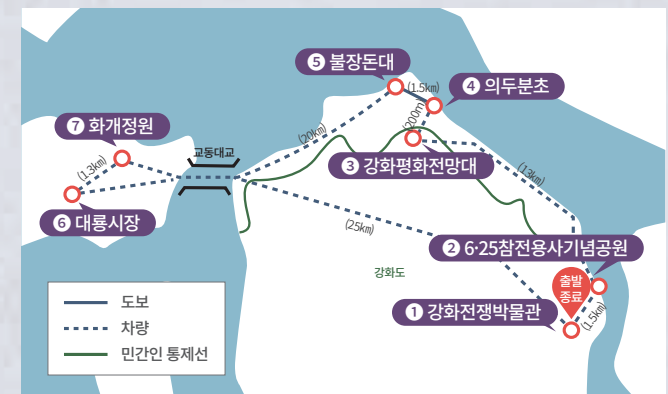
집결 장소 강화전쟁박물관 주차장

참가비 1만원(지역 기념품 제공 및 입장료로 사용)

코스 강화전쟁박물관~6·25 참전용사기념공원~강화평화전망대~의두분초~철책선 도보길~불장돈대~대룡시장~화개정원(도보길 1.5km 포함 총 62.5km, 5~6시간 소요)

참가 신청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 또는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만 7세 이상)

문의 1644-1303(DMZ 평화의 길 안내센터)





66

## 인류의 미래를 위한

### 탄소중립,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할 기대

99

우리 시는 지난 5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류를 살리는 1.5°C, 약속의 땅 인천을 찾은 반 전 총장은 “세계 시민 정신을 갖고 국경을 뛰어넘어 사고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한뜻으로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BAN KI-MOON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 끓고 있는 지구, 탄소중립만이 인류의 희망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태평양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1~3m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들은 지구온난화로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UN 사무총장 시절, 소멸 위기에 처한 ‘키리바시’를 직접 다녀왔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집 안에 물이 들어차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을 돌며 목격했던 기후위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한국인 중 처음으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의 업적을 이룬 인물이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이 됐을 땐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임기 중간쯤엔 지구가 열이 난다고 했다”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한다. 지구가 열이 나다 못해 팔팔 끓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쓰든 열부터 내려야 한다”며 “세계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인류에 희망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인류를 살리는 1.5°C, 약속의 땅 인천

우리 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이다. 지난 2018년 인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은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고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기후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에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인천광역시청 잔디마당에 세워진 기후위기사계

66  
우리 시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1.5°C 기후위기사계를  
설치했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1.5°C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시계입니다. 인천은 ‘2045 탄소중립’ 사업을  
힘차게 추진, 필<sup>必</sup>환경시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유정복 시장  
99

(ADB) 연차총회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6개국과 ADB가 손을  
맞잡고 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  
리티(IF-CAP)’를 공식 출범시켰다. ADB는 기후변화 금융지원 목표  
를 최대 1,0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을 찾은 반 전 총장은 “전 세계가 한뜻으로 탄소중립을 이뤄내  
야 한다”며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우리 시는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수  
립해, 부문별 154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2  
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개최식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  
을 선언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탄소 경제-생태도시 조성, 맞  
춤형 시민 기후행동 확대, 글로벌 기후협력체계 활성화, 안전한 기  
후위기 적응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골자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인 시민 실천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최  
초로 ‘탄소중립기후시민공동체’ 사업을 추진, ‘2045 탄소중립’을 달  
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20일에는 ‘제54회 지구의 날’  
을 기념해 인천대공원에서 ‘2024 탄소중립기후시민공동체 발대식’  
과 ‘제2호 기후위기사계 제막식’을 가졌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올바  
른 방향 설정과 세밀한 추진 전략 그리고 모두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탄소중립은 반드시 실현된다. 인천이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2045년, 인천이 탄소중립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난다.



2045 인천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2022년

1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  
포럼’에서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  
했다.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5대 과제 154개 사업을 수립했다.

2023년

2 우리 시는 인천종합에너지 등 인천의 기업, 단체,  
학계 등 35개 기관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3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유치 10주년  
을 맞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체결된 UN기후변  
화협약(UNFCCC)으로 2013년 12월 인천에서 정  
식 출범했다.

2024년

4 제54회 지구의 날에 시민 기후행동 인식 전환 및  
실천을 확산하고자 ‘2045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  
체’를 발족했다.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는 2045  
인천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  
스 감축,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선도한다.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 2045 탄소중립 초일류 도시 인천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올바른 방향 설정과 세밀한 추진 전략 그리고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탄소중립’은 반드시 실현된다. 인천이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인천이 탄소중립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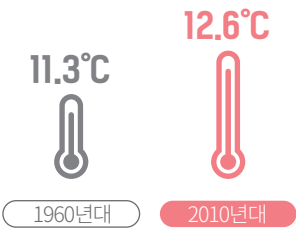
정리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지구 평균 온도



• 인천 연평균 기온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 평균 해수면



• 한발 빠른 인천



- 2018년 송도에서 열린 제48차(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지구 평균 온도 1.5°C 억제 목표를 지향하는 ‘1.5°C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1.5도 선언 도시’ 인천!
- 인천, 2023년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시청 앞 인천爰돌 광장에 전국 공공청사 최초 ‘기후 위기 시계’ 설치해 시민 관심과 참여 유도
- 또한, 2024년 범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연간 400만 명의 방문객이 모여드는 인천대공원에 기후 위기 시계 2호 설치

•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



• 4대 정책 전략, 15대 과제, 154개 감축 사업 설정

[비전]

66 「1.5°C 선언」 2045 탄소중립 실현,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99

[4대 정책 방향]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	맞춤형 시민 기후 행동 확대	글로벌 기후 협력 체계 활성화	안전한 기후 위기 적응 강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	기후 클러스터 조성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미래 세대 교육 강화	기후 국제도시, 국제기구 리더	자원의 선순환 강화
신기후 산업 육성	녹색 실천 운동 확대	기후 변화 리빙랩 추진	공정한 전환 실현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기후 복지 실현

[15대 과제]

•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의 노력

- 2018년

  - 1.5°C 특별보고서 채택 승인(1.5°C 인천 선언)
- 2022년

  - 인천 기본 조례 제정 및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통합 출범
  - 2045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비전 선언
- 2023년

  - 「1.5°C 기후 위기 시계(1호)」 국내 공공청사 최초 설치
  - 민·관·산·학 상생 협력 MOU 체결(35개 기관)
  -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 탄소국경세 등 탄소-경제 통합 대비 사업장 탄소중립 교육 및 컨설팅
  - 기후 위기 취약 계층 지원 사업
  - 환경 기초 시설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지방 정부 탄소중립 선도 사례 확산 MOU 체결 (환경부·인천시·지역 7개 기업)
  -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 주간 행사 개최 (8월 28일~9월 1일)
- 2024년

  - 시 홈페이지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
  - 대한민국 지방 정부 기후 적응 선언식 참여
  - 저탄소도시 국제 포럼 개최
  - 탄소중립 가가호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4~2033) 수립
  - 탄소중립 잔반 Zero 챌린지 추진
  - 텀블러 나눠쓰기 캠페인 전개
  - 2024 탄소중립기후시민공동체 발족 및 운영 300만 시민 실천 사업 참여 확대
  - 「1.5°C 기후 위기 시계(2호)」 인천대공원 설치
  -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탄소중립 특강
  -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기후환경포럼 개최(분기별 1회)
  - ※ 탄소중립 시민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연중)



## 사라진 혈떡고개, 이제 ‘막’ ————— 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글·사진 유동현 전<sup>부</sup> 인천시립박물관장  
<골목, 살아지다>, <동인천 잇다 있다>, <까치밭로 본 인천>, <시대의 길목, 개항장> 등 여러 권의 인천 관련 책을 펴냈다.

어렸을 적 작은아버지네는 동구 송림동 혈떡고개 아래 살았다. 고갯길 초입에서 약방을 운영했다. 우리 가족들은 흔히 ‘약방집’이라고 불렀다. 약방집 가는 심부름은 늘 내 차지였다. 달짝지근한 구론산 한 병 받아먹는 맛에 자원해서 다녔다.

송현동 우리 집에서 약방집까지 가려면 큰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일명 ‘똥고개’라 불린 수도국산 언덕이었다. 그 고개와 혈떡고개는 일직선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오르막에서는 킁킁거리며 내리막에서는 구르다시피 달려 내려갔던 기억이 있다.

약방집 문 앞으로 난 길은 바로 혈떡고개와 이어졌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각양각색의 작은 집들이 가파른 언덕 위에 오밀조밀 다닥다닥 어지럽게 겹쳐 있었다. 당시에는 한 번도 그곳에 올라가 보지 못했다. 비탈진 고개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

막; 다른 골목-송림동 혈떡 고개 이야기

기간 6월 16일까지

장소 우리미술관 전시관

※ 동구 화도진로 192번길 3-11

시간 화·수·금·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목요일 오후 2시~6시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문의 032-764-7663~4



혈떡고개 랜드마크인 천관고개



혈떡고개 사람들(위)  
홀로 남겨진 해바라기(아래)

주 낮설게 보였다. 그 혈떡고개가 얼마 전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곳을 오르락내리락하며 20년 동안 혈떡거리며 수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 동네는 송림4동과 송림6동을 아우른다. 가파른 언덕을 넘으며 혈떡거리다고 해서 흔히 ‘혈떡고개’라고 불렀다. 언제부턴가 그 이름이 귀에 거슬렸는지 ‘활터고개’로 순하게 바뀌었다. 1970년대 들어 고개 일대 동네는 한동안 궁현동으로 불렸다. 활터고개의 한자식 표기인 ‘궁현 弓峴’이었다. 먹물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언제나, 여전히 ‘혈떡고개’였다.

이 고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다.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산꼭대기에 솔단지를 걸기 시작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고개 위로 모여 들었다. 한때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손에



혈떡, 혈떡, 혈떡고개

꼽힐 정도로 촘촘했다. 예전에 개건너(가좌동) 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만나는 첫 번째 산동네였다.

이 동네의 사라짐은 단순히 낡은 마을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인천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6·25 전쟁 피난민들 삶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던 공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고개는 혈떡고개가 아니다. 혈떡거리며 고개를 넘을 일이 없다. 넘을 사람도 없다. 포클레인의 삽날은 가파른 고개를 여지없이 깎아냈다. 비탈진 삶을 살았던 우리네 흔적과 기억들이 모조리 사라졌다. 나 또한, 혈떡거리며 사진 찍을 일이 없다.

수많은 시간 여기저기 인천의 (마구)다른 골목들을 쏘다니며 풍경을 담았다. 자고 나면 마을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제 나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혈  
떡  
고  
개  
의  
비  
탈  
진  
풍  
경  
들

1 —— 8월 중순이면 인천 동네 곳곳에 주단<sup>주단</sup>이 깔린다. 경쟁하듯 고추를 말린다. 인천 사람들의 고추 말리기는 좀 유난스럽다. 왜 그럴까. 피난민이 많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에서 내려올 때 보따리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싸 들고 내려왔다. 그것으로 맨밥에 국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고추 말리기는 생존이자 본능이다.

2 —— “김장 못해도 굶어 죽진 않지만, 연탄은 없으면 얼어 죽는다.” 월동 생존으로는 연탄이 우위에 있었다. 연탄은 밥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필수 연료였다. 연탄광은 집안의 필수 공간이었다. 집집마다 연탄을 쌓아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부엌이나 변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 공간도 없으면 마루 밑에 쥘여놓았다.

3 —— 연탄보일러가 등장하면서 그나마 연탄가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22년 4월 어느 날, 인천시립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빈집의 오래된 연탄보일러를 유물로 떼어 왔다. 이 집은 연탄의 열기로 기나긴 엄동설한의 겨울을 지냈다. 지금은 차디찬 녹슨 ‘유물’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돼 인천인의 추억을 훈훈하게 데워줄 것이다.

1 2  
3



4 —— 다 ‘때’가 있다. 사람에게만 때가 있는 게 아니다. 건물도 때가 있다. 한창 잘나가던 목욕탕이 세월의 때를 간직한 채 사라졌다. 혈떡고개 초입에 있던 ‘태양탕’은 한 동네의 그때를 품고 있다. 예전에 목욕탕은 한 동네의 중요한 편의 시설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앵커 시설이자 동네 거점이었다. 이른바 ‘탕<sup>탕</sup>세권’이었다. 누구에게나 덜어내고 싶은 ‘때’가 있다. 슬픈 기억, 아쉬움, 걱정거리, 고민... 목욕탕과 함께 ‘그때’가 모두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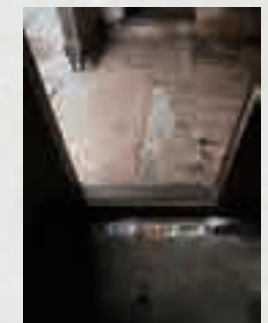
5 —— 폐허 한가운데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할머니 한 분이 대추를 털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38년 살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셨다고 한다. 매년 이 나무는 많은 대추가 열렸는데 그동안 대추 한 알도 딸 수 없었다고 한다. 대추나무 집주인 여편네(할머니의 표현)가 아주 야박하게 굴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공사장에서 긴 막대기를 주워서 주인 없는 대추나무를 힘겹게, 그렇지만 아주 신나게 털었다. 이제 여편네도 할머니도 그리고 대추나무도 사라졌다.

4  
5  
6  
7  
8

6 —— 이 카사블랑카(하얀 집)는 한때 인천 동구에서 가장 큰 ‘대장 주택’이었다. 1970년대에 건축된 4층 집(1층은 상점)인데 멋진 계단으로 각 층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했다. 건축학적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집 아이들은 숨바꼭질도 숨차게 했을 것이다. 현대시장 바로 옆에 있던 이 집도 재개발로 사라졌다.

7 —— 속살이 보인다. 빈집이 되면서 온기와 숨결이 사라지자 비바람 맞은 벽은 금이 갔고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블록(보로구)인 줄 알았는데 벽 안에서 황토가 흘러내렸다. 흙벽이었다. 혈떡고개에 있던 대부분의 집들은 겉에 시멘트(썬멘)를 발랐지만 그 속은 흙벽돌로 쌓은 벽이었다.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뎌온 흙벽돌집이 포클레인의 삽날 한 방에 황토 바람이 돼 날아가 버렸다.

8 —— 어느 빈집 안방 문지방 앞에 ‘돈’이 놓여 있었다. 1,210원 + 5,300원 + 10,510원 그리고 달러 한 닢. 대낮일지라도 철거 현장의 빈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긴장하게 된다. 돈을 보았을 때 움찔했다. 이 집 귀신에게 바치는 돈이라 생각했다. 자세히 보니 돈 옆에 구겨진 세금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납된 돈을 놓고 간 것이다. 주인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떠났다.





# 노래로 인천학도의용대



##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인천학도의용대의 기상

1년 전 6월 25일, 6·25전쟁 당시 자원입대해 나라를 지킨 인천 출신 학도병의 노래 ‘인천학도의용대가’가 복원되어 공개됐다. 인천의 역사 품은 음악을 발굴하고 연주하는 ‘인천콘서트챔버’에 의해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6월, 당시 처절하고도 용맹하게 외쳐 불렀을 그들의 이야기가 정식 음반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다.

글 이승목 인천콘서트챔버 대표



음반 제작기 영상

인천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자유공원. 그곳에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이 우뚝 서 있다. 기념탑은 6·25전쟁에 참전한 인천학도의용대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다. 음악으로 인천을 알리는 인천콘서트챔버가 인천학도의용대의 노래 ‘인천학도의용대가’를 복원한 음반을 제작한 이유도 이와 같다. 지난날의 노래로 인천학도의용대의 역사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8일, 인천 출신 학도의용대는 축현국민학교(현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동장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을 마친 뒤 20여 일간을 걸어 부산에 닿은 학도의용대는 자원입대해 전장에 몸을 던졌다. 인천학도의용대는 바로 그들의 노래다. 작사는 이기관, 염상건, 김영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곡은 다른 군가의 곡조를 차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높은 기상과 곧은 절개의 가사와 장중한 행진곡풍의 선율에서 학도병의 용맹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음반에는 두 가지 형식의 인천학도의용대가가 복원되어 수록됐다. 첫 번째 트랙은 소프라노 장소연과 바리톤 박대우의 2중



창 버전이다. 두 번째 트랙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덧입혀져 의미를 더한다. ‘인천학생연합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음반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인천학도의용대의 모교 재학생들로 이뤄졌다. 인천고, 인천남고, 인천대건고 등 10여 명의 학생이 선배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음원 제작에 함께했다.

특히 반주 녹음에는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 교향악단 단원 10여 명이 인천콘서트챔버의 객원으로 참여해 수준을 높였다.

인천학도의용대가의 복원은 역사 속 음악을 꺼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표로 결성된 인천학생연합중창단과 국내 여러 교향악단 단원이 지난날의 인천학도의용대를 가슴에 품으며 작품 제작에 임했다. 한마음으로 모인 인천학도의용대와 같이 한뜻으로 모여 음악을 복원한 것이다. 음반을 통해 전장에서 한 줄기 꽃이 된 인천학도의용대의 송고한 역사가 널리 향기로 전해 지기를 바란다.

## MINI INTERVIEW

### 박기태 학생 인천고등학교 3학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도병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음반 제작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고 선배님을 포함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학도병 선배님들의 송고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지킨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 정은제 학생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음악을 녹음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선배들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단과 실천을 했다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셔서, 오늘의 저와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후배들을 위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 인천학도의용대가

작사 이기관, 염상건, 김영택  
작곡 미상

정열과 용맹은 학도의 보배  
이 나라의 흥망은 우리의 생명  
이 몸을 다 바치어 나라가 흥한다면  
우리 학도의용대 죽음으로써  
아아 웃으며 꽃이 되리라

임전무퇴 교우이신 화랑도 정신  
거룩하신 10용사 뒤를 받들어  
백두산 하늘 높이 태극기 휘날릴 때  
우리 학도의용대 보람 있으리  
아아 웃으며 꽃이 되리라



CULTURE

CALENDAR

06

JUNE 2024

<div>06 목</div> <div>요기조기 음악회</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 <div>오후 6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40-3977</div>	<div>09 일</div> <div>홍채린 파이프오르간 독주회</div> <div>엘림아트센터 엘림홀</div> <div>오후 4시 30분</div> <div>전석 1만 원</div> <div>032-289-4275</div>	<div>15 토</div> <div>2024 클래식 시리즈 III</div> <div>‘백건우와 모차르트’</div> <div>중구문화회관 공연장</div> <div>오후 5시</div> <div>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div> <div>032-420-2000</div>	<div>16 일</div> <div>로비 콘서트 ‘국악 트리오’</div> <div>엘림아트센터 6층 로비</div> <div>오후 2시</div> <div>성인·청소년 1만 원, 미취학 아동 1,000원</div> <div>032-289-4275</div>	<div>22 토</div> <div>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 <div>낮 12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40-3573</div>	<div>27 목</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86회 정기연주회</div> <div>모차르트 레퀴엠&amp;펜데레츠키 아뉴스데이</div> <div>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R석 2만 원, S석 1만 원</div> <div>032-420-2000</div>
<div>07 금</div> <div>지브리 영화음악 심포니 콘서트</div> <div>with 오케스트라</div> <div>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4만 원</div> <div>02-2038-8662</div>	<div>13 목</div> <div>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II’</div> <div>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전석 2만 원</div> <div>032-453-7700</div>	<div>19 수</div> <div>2024 커피콘서트IV</div> <div>정민호&amp;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고음악살롱’</div> <div>동구문화체육센터</div> <div>오후 2시</div> <div>전석 1만 5,000원</div> <div>032-420-2000</div>	<div>22 토</div> <div>2024 황·금·토·끼</div> <div>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div> <div>신명나는 남사당놀이</div> <div>‘우리 한상 놀세!’</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20-2743</div>	<div>28 금</div> <div>스테이지149 ‘인피니티 플라잉’</div> <div>계양문화회관</div> <div>28일 오후 7시 30분, 29일 오전 11시, 오후 2시</div> <div>전석 2만 원</div> <div>032-420-2000</div>	
<div>08 토</div> <div>가족 오페라 ‘홍부와 놀부’</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 <div>8일 오후 7시 30분, 9일 오후 5시</div> <div>전석 2만 원</div> <div>032-420-2000</div>	<div>14 금</div> <div>2024 황·금·토·끼</div> <div>애니메이션 크루</div> <div>‘HAVE A GOOD TIME!’</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20-2731</div>	<div>2024 황·금·토·끼</div> <div>전통음악의집 락궁</div> <div>‘달빛의 향기’</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20-2731</div>	<div>21 금</div> <div>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3회 정기연주회</div> <div>2024 거장의 숨결 ‘시련을 넘어’</div> <div>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전석 1만 원</div> <div>032-420-2000</div>	<div>23 일</div> <div>지브리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div> <div>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div> <div>오후 4시</div> <div>VIP석 11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div> <div>02-6292-9368, 9370</div>	<div>30 일</div> <div>챔버 페스티벌 시리즈</div> <div>‘장승호와 기타 심포니’</div> <div>엘림아트센터 엘림홀</div> <div>오후 4시 30분</div> <div>전석 1만 원</div> <div>032-289-4275</div>
<div>인천시립무용단 춤추는 도시 인천 2024</div> <div>‘야회夜會 II -대공원의 하루’</div> <div>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div> <div>8일 오후 4시, 9일 오후 7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20-2788</div>	<div>고도를 기다리며</div> <div>남동소래아트홀</div> <div>14일 오후 7시 30분, 15일 오후 2시</div> <div>R석 4만 5,000원, S석 3만 원</div> <div>032-439-5001</div>	<div>마크 민코프스키&amp;루브르의 음악가들</div> <div>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div> <div>오후 5시</div> <div>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div> <div>032-453-7700</div>	<div>2024 황·금·토·끼</div> <div>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div> <div>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 <div>오후 7시 30분</div> <div>무료</div> <div>032-420-2743</div>	<div>로비 콘서트</div> <div>‘아이작 첼로 파르텔’</div> <div>엘림아트센터 6층 로비</div> <div>오후 2시</div> <div>성인·청소년 1만 원, 미취학 아동 1,000원</div> <div>032-289-4275</div>	<div>26 수</div> <div>마실 : 엑시트의 Only Voice</div> <div>남동소래아트홀</div> <div>오전 11시</div> <div>전석 5,000원</div> <div>032-439-5001, 070-8831-7798</div>

이달의 전시

막; 다른 골목-  
송림동 헐떡고개 이야기

우리미술관 전시관

6월 16일까지

032-764-7663~4



어울러, 봄

서창생활문화센터

6월 25일까지

0507-1428-5021



이영란의 감성체험

가루나무모래흙

남동소래아트홀

6월 29일까지

0507-1401-5710



남동구 문화재 특별전

소래역사관

6월 30일까지

032-439-5003



헬로우, 아트랜드

부평아트센터

7월 31일까지

032-500-2066, 2115

시골 쥐의 도시 여행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전시실

오픈런

032-850-6000

공연 맛보기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춤추는 도시 인천 2024’

생명력 넘치는 6월, 도시를 춤으로 채울 인천의 춤 축제

2008년 처음 막을 올린 ‘춤추는 도시 인천’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춤을 통해 열린 무대, 함께하는 공연을 지향하는 순수 춤 축제다. 특히 올해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특별 무대 ‘야회夜會’ 시리즈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와 인천대공원에서 선보인다. 무용 마니아를 위한 갈라 무대 ‘폐막 공연 : 춤추는 도시 2024’는 순수 무용 장르별 단체들의 대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길잡이 공연이다. 2024년 여름을 맞이하는 6월, 온 도시를 춤으로 아름답게 물들일 인천의 춤 축제와 함께하자.



# 시민 선



## 또 하나의 가족,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오늘, 시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새 희망 잔뜩 머금은 반짝이는 눈망울로 바라본 시민의 시선을 따라갑시다. 시민의 눈에 비친 삶 속 이야기, 이번 호 주제는 1,000만 인구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1 2



#꽃보다 '두부'

### 첫 번째 시선

코로나19 시국에 우리 가족에게 온 두부.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네요. 봄에 피는 꽃처럼 우리에게 와준 두부야~ 사랑해♥

김창민(중구 은하수로)

사랑해, 사랑해 '송이'

### 두 번째 시선

단지 사랑합니다. 꼬순내도 향기롭고, 뱃살이 통통해도 귀여웁고, 가끔 성질을 내도 양증맞기만 합니다. 주는 것밖에 모르는 '세상 무해한' 생명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건, 사실 우리랍니다.

양시호(남동구 아암대로)

# 視線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 세 번째 시선

토이 푸들인데, 털이 덜 곱슬거리 김빠진 사이다 같다고 해 '김사이다'라 불리는 우리 집 막내랍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자!

유아란(중구 인항로)

#8년째 동고동락 '미니'

### 네 번째 시선

딸아이의 소원으로 가족이 된 미니.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가 되었답니다~ 잠자는 모습도 이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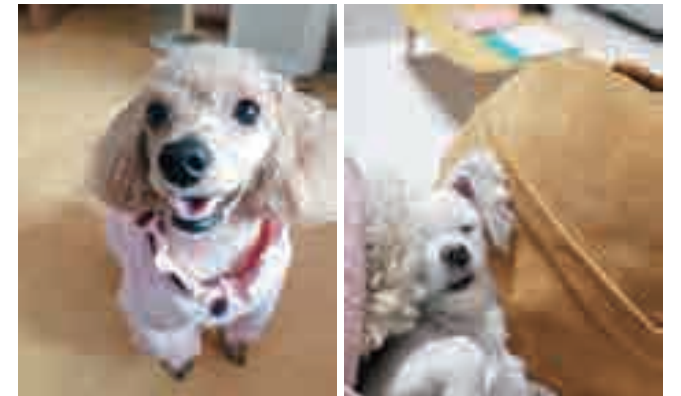
길선이(서구 경서로)

#웰시코기의 정석 '루나'

### 다섯 번째 시선

오래 키우던 크림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도 잠시... 새 가족이 된 루나의 애교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김선희(미추홀구 미추로)



3 4 5



#행주 말고 '행주'

### 여섯 번째 시선

산책 때마다 방실방실 웃는 우리 집 강아지 행주~ 분위기 메이커이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입니다. 행주야~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전준선(남동구 남촌로)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깜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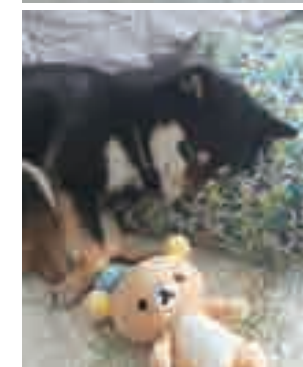
### 일곱 번째 시선

귀여운 우리 집 막내 깜순이가 오늘도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코~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깜순이, 꿈나라에서 깨면 같이 산책 나가자~

이영희(부평구 굴포로)



6 7



### '디카시'에 도전해 보세요!

[주제 : 하늘]

참여 방법 1. 주제에 맞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2.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mi2024@naver.com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과 사연이 소개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디카시** 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표현한 시

예시) 하늘의 달처럼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저 달처럼, 캄캄한 오늘을 눈부신 내일로 비추리!



IMAGE NEWS

# 66 민선 8기 인천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 99

## 인천의 품안에서 따뜻한 동행·공평한 출발, 인품사업

※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2년이상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



열여덟 어린  
자립준비청년, 화이팅!

#갑자기 어른 #서투른 독립이 외롭지 않도록  
#만 18세에 홀로서기 #인천시와 청년들의 아름다운 동행  
#해마다 약 2,000여 명(대한민국)의  
자립준비청년 사회에 첫발

01



인천의 품에서,  
가족의 품처럼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하는 인품 자립지원사업  
#6개 분야 21개 핵심 사업 #세심한 관심과 탄탄한 지원  
#자립생활·주거안정·심리정서·취업진로·  
보호종료 지원·자립기반 조성

02



인천형 희망 프로젝트

#'독립'이 '자립'이 되는 순간까지 #위풍당당 인천  
#자립수당 상향(40만 원→50만 원)  
#자립정착금(1,000만 원) #맞춤형 사례관리  
#시민멘토단 #인품가족단 #자립생활관 구축 #디딤씨앗통장

03



그리하여  
따뜻한 동행·공평한 출발

#어제의 고민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는  
#인천과 청년의 #환상의 콜라보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1위 #우수혁신사례  
#자립준비청년과 인천의 따뜻한 동행은 #계속됩니다!

04

문의 : 아동정책과 032-440-2883

##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1 — 우리 시가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과 인허가 행정 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 2 —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 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 3 — 글로벌 투자사 이앰피 벨스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의향서 제출이 실질적인 투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4 —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와의 협약을 통해 제공한 사업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 5 — 우리 시가 시민 중심의 민생 현안 해결과 세계 초일류 도시 준비를 위해 올해 본예산 15조 368억 원에서 5,717억 원 늘어난 15조 6,08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 6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홍보단'이 본격 가동된다. 개항장과 내항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개항 14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옛 제물포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 7 — 우리 시가 최초 치매 전담형 시립 요양원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는 2018년도부터 공공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INCHEON NEWS

영종국제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



우리 시가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조 셉 파나핀토 주니어 회장, 대한항공 인승준 수석, DP 인터내셔널 김영란 대표가 참석했다. 파나핀토와 DP인터내셔널은 국제 항공 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및 관련 종사자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과 인허가 행정 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문의 IFEZ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1323

2년 연속 혁신 평가 1위, 대통령 표창 쾌거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 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1위로 선정된 것이며 해당 평가 이래 우리 시가 최초다. 우리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이용자 중심 공공 서비스 개선 등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인<sup>+</sup>품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 개선 사례로 주목받았다.

문의 시 시정혁신담당관 032-440-1652

전국 시도 최초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수상

우리 시가 제27회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공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로지스틱스대상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1998년부터 매년 국내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및 산업 전문가,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상한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시행, 항만 배후 단지 조성 지원, 인천공항 내 친환경 첨단 기반 시설 구축, 항공정비산업(Airline MRO) 지원 등 지역 및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시 물류정책과 032-440-3872

미국 글로벌 기업 투자의향서 제출

글로벌 투자사인 이엠펜 벨스타가 우리 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펀드 매니지먼트 기업인 이엠펜 벨스타는 이미 송도국제도시 내 신항 배후 단지에 LNG 냉열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초저온복합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으로, 기업 대표인 다니엘 윤 회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수립되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이 실질적인 투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IFEZ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7323

‘9·15 인천상륙작전’ 국가기념일 지정, 한마음 한뜻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 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 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 아이 평화 캠프, 2024 통일 청년 대화,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시 총무과 032-440-2402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홍보단 가동

중구 개항장과 내항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행사를 체험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홍보단’이 본격 가동된다. 시민 홍보단은 개항장과 내항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개항 14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옛 제물포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며 개항장과 내항의 명소, 축제 등을 체험하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케팅 등을 수행한다.

문의 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032-458-7332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캠퍼스가 인천에

우리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마크 스미스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부총장 겸 대표와 확장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월 설립 의향서 제출 이후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됐으며 이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영국 대학 설립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우스햄튼대학교는 영국 명문 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됐으며 고<sup>후</sup>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최초로 인가한 대학이다. 메인 캠퍼스인 하이필드 캠퍼스, 윈체스터 캠퍼스, 말레이시아 캠퍼스 등 총 8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문의 시 서비스산업유치과 032-453-7404

수도권 최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하반기 개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와와의 협약을 통해 제공한 사업 부지(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 4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기획전시실을 갖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 항만의 역사와 함께 해양을 통한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문의 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22



INCHEON NEWS

‘국제치안산업대전’ 4년 연속 우수 전시회 선정

우리 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주)메썸이상이 주관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전시회는 2022년 국제전시협회(UFI) 국제 인증을 획득해 국내 대표 산업 전시회로 발돋움했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첨단 치안 장비, 드론, 정보·보안 시스템, 범죄 수사, 감식 장비 등 치안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스마트 치안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글로벌 전시회로, 분야별 수출 상담회, 경찰 구매 상담회, 투자 상담회 등 기업 판로 지원은 물론이고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시 관광마이스과 032-440-1502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7월 개최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수도권 최대 해양 분야 지식 포럼인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The World Calls, The Ocean Waves)’라는 대주제 아래 2020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총 30개국의 연사 180명이 참석해 포럼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올해는 풀리처상 수상작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충, 균, 쇠>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기조연사로 나선다. 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라는 주제로 해양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 전략을 온라인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문의 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47

수봉공원에 ‘월남전 참전 기념탑’ 우뚝



우리 시가 수봉공원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월남전 파병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월남전 참전 기념탑’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월남전 참전 기념탑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월남전에서 피와 땀과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후손에게 나라 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건립됐다. 월남전 파병 기간(약 8년 8개월)의 의미를 담은 8.8m 높이의 주탑을 세우고, 인천 지역 출신 월남전 참전 용사 약 1만 1,500명의 이름을 명각비에 새겨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전 용사의 용맹한 기상과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군인 형상 조형물 2점과 건립취지문 등을 조성했다.

문의 시 보존정책과 032-440-2927

미래 차 소재·부품 사업화 위한 초석 마련

우리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고강도·고방열 경량 금속 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신속한 기술 전환과 혁신 성장을 도모해 온 노력의 성과다.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우리 시가 지원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미래 차 부품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문의 시 산업정책과 032-440-4207

인천시 최초 치매 전담형 시립 요양원 2026년 준공

우리 시가 최초 치매 전담형 시립 요양원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건립은 시민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우리 시가 2018년도부터 공공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개인실과 함께 공동 거실이 복합된 치매 전담형 유니트로 설계된 시설은 입소자의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해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함께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통합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문의 시 건강증진과 032-440-2983

광역자치단체 최초 등산로 도로명 부여

우리 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위치 정보가 취약한 등산로 등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구호에 활용한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는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격자식·좌표식으로 위치 정보를 표시해 단기 기억 및 음성 전달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련 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문학산 등산로 구간(수인선 송도역~선학동 법주사 인근 5km)에 도로명 ‘문학산에움길’ 부여를 심의·고시했다. ‘에움길’이란 ‘굽은 길, 또는 에워싸 돌아가는 길’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문의 시 토지정보과 032-440-4592

F1 그랑프리 유치 위한 본격 행보 시작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나코 F1 그랑프리를 방문, F1 그랑프리 인천 대회 개최를 위해 F1 그룹과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모나코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 원 그룹 최고경영자를 만나 협력의향서를 전달하고, F1 그랑프리의 인천 개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포뮬러 원 그룹 측은 인천에서 대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올해 안에 공식 제안서 제출, MOU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조건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F1 관계자의 조속한 인천 현장 방문도 요청했다. 또한 F1 서킷 디자인 전문 업체인 DROMO사와도 실무 협의서를 체결했다.

문의 시 관광마이스과 032-440-5056

시민 행복 지원하는 5,717억 원 추경 편성

우리 시가 시민 중심의 민생 현안 해결과 세계 초일류 도시 준비를 위해 올해 본예산 15조 368억 원에서 5,717억 원 늘어난 15조 6,08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예산 재원은 세외수입 1,927억 원과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926억 원 등으로, 재정 건전 운용 기조하에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문의 시 예산담당관 032-440-2252



COUNCIL NEWS

해양 생태계를 선도하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지속 가능한 인천 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지속 가능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씨그랜트 정책 및 인천시와 지역 대학,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연구회는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아태지역 해양 생태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형 해양 협력 정책 사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내항 및 남항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해양 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특성에 맞는 내항 및 남항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해양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위원회는 “인천 내항과 남항의 발전을 통해 인천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지방 재정의 방향성 제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지방 재정 분석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첫 번째 분석 보고서가 인천시 지방 재정의 현황과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보고서는 국내 우수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 지방 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 방안 연구, 인천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방안,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사례, 유보 통합 재정 소요 추계 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의정 활동을 보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관광, 시민 소통에 앞장서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 관광 활성화 연구회’가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직접 인천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맛집을 탐방하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의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번 활동이 인천시의회가 지역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원들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초·중·고·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인천시의회와 함께한 꿈나무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66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원님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인천안산초등학교  
5월 1일 석정규 의원과 함께

99



66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현중학교  
5월 3일 조성환 의원과 함께

99



66 뉴스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인천남중학교  
5월 9일 이봉락 의원과 함께

99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대학생 의정 교실 | 스피치 특강, 모의 의회를 통해 직접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본회의 체험 교실 | 인천시의회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

참여 문의 | 의사담당관실 032-440-8145

**6월 회기 운영 계획 [ 제295회 임시회 ]**

기간 | 6월 3~28일(26일간)


주요 안건 | ·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인천의정소식> 구독 안내**

인천시의회의 자체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의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인천의정소식> 바로 가기





여기,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천의 오늘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인천의 찬란한 내일을 색칠해 주세요. 시민의 색으로 물들어갈수록, 인천의 행복한 미래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인천의 눈부신 오늘과 찬란한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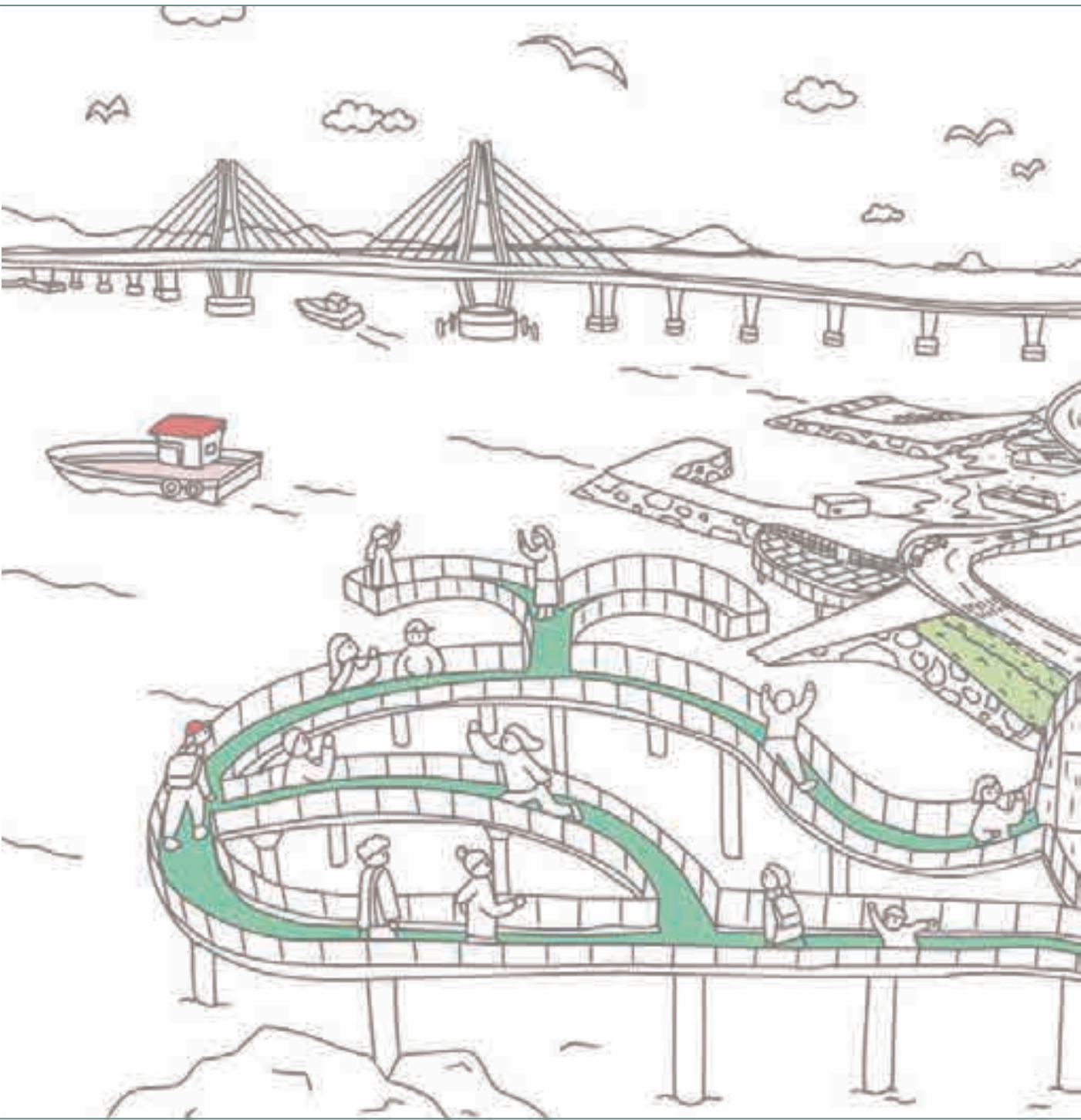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영흥도 고래 형상 스카이워크 조성

영흥도에 고래가 나타났다. 정체는 새로운 랜드마크 ‘반딧불이 하늘 고래 스카이워크’다. 영흥대교와 어우러져 밤바다를 밝히는 이곳은 4월 말 완성됐다. 물을 뿜는 고래의 형상을 한 스카이워크는 아름다운 해안을 조망할 수 있도록 폭 3m, 길이 180m의 해안 보행로로 만들어졌다. 밤이 되면 고래는 물이 아닌 빛을 내뿜는다. 야간 경관 조명에 불이 켜지면, 캄캄한 바다 위 한 마리 거대한 고래가 모습을 드러낸다. 밤에도 섬을 밝혀, 그림 같은 밤바다의 야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영흥도의 새로운 명소 ‘반딧불이 하늘 고래 스카이워크’



인천을 물들인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재량 부평구 부평대로



허군 중구 광화로



김정은 서구 봉오재로



박나영 미추홀구 석정로



김윤배 남동구 남동대로

영흥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섬이다. 이번 반딧불이 하늘 고래 스카이워크의 탄생과 함께 영흥도가 지닌 아름다운 해안 경관의 매력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 작가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홍보기획관실 <굿모닝인천> 담당자 앞  
② **메일** : gmi2024@naver.com  
**기간** 6월 17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 시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월은 ‘우현 고유섭’의 달입니다 |



한국 미학의 태두이자, 인천이 낳은 문화독립운동가 우현 고유섭 80주기 행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독립운동가 우현 고유섭

[추모제]

일시 6월 22일 오후 3시  
장소 용동큰우물광장  
주최 우현 민간단체(김선학 위원장)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우현 고유섭 80주기 추모예술제]

일시 6월 22일~7월 5일  
장소 우현문갤러리  
주최 우현 민간단체  
오픈 6월 22일 오후 3시  
· 1관 [특별전] 고유섭으로부터... <이경성, 강찬균, 고정수 3인전>  
· 2관 [사진전] 다큐에 미학을 입다 <감성다큐! 추억소환>  
주최 :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 3관 [회화전] 인천 문화상 수상자 회화전

[우현의 길 걷기]

일시 6월 22일 오전 9시  
장소 용동큰우물  
주최 순례길학교

[시 낭송회]

일시 6월 29일 오후 4시  
장소 라이온스회관  
주최 섬섬옥수커뮤니티

01 스티커로 APEC 유치 응원해요



내용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응원하는 홍보 스티커 배부  
기간 개최 도시 확정시까지  
대상 인천을 사랑하는 누구나  
방법 홍보물(스티커) 차량 및 사업장 부착 등을 통해 유치 응원 참여  
신청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홈페이지 신청  
www.incheonsamo.or.kr  
문의 032-440-2403

02 비류와 함께 문학산의 밤을 거닐어요

내용 ‘비류가 세운 도읍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주제로 이끄미와 함께하는 문학산 탐방 프로그램  
일시 6월 8일, 15일, 22일, 29일 오후 5시~8시 30분  
장소 문학산 및 문학산성 일대  
대상 초등학생 이상 가족 단위, 회당 30명 선착순 모집  
비용 1인 1만 원  
문의 032-866-3993~4

03 배움으로 보람찬 삶을 누리세요



내용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2024년 제3기 사회 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 기간 6월 21~28일 ※ 7월 8일까지 추가 모집  
교육 기간 7월 1일~9월 21일 12주 과정 ※ 공휴일 및 1주 방학 포함  
교육 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시 거주자  
※ 전 과목 정원 30% 범위 내 남성 수강 가능(일부 강좌 제외)  
수강료 3만 6,000원, 4만 5,000원, 6만 원, 8만 원  
※ 교재비·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www.incheon.go.kr/wiw  
교육 과목 8개 분야(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창업 교육, IT 전문 교육, 어학 전문 교육, 문화 아카데미, 웰빙 건강 교육, 주말 교육, 단기 교육) 79개 강좌  
문의 032-458-7360

04 단절된 경력, 다시 이어가세요

내용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2024년 새일직업 훈련 교육생 모집  
목적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진로교육활동가, 직업상담사 실무, 단체급식조리사, 실버케어전문가 등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  
사전 접수 센터 방문 접수  
비용 훈련생 자부담은 1인당 10만 원  
※ 수료 후 5만 원 환급,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 원 환급  
※ 교재비, 수강료, 재료비 등 지원  
특전 전문 취업상담사의 1:1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 혜택, 취업 후 직장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문의 032-881-6062

05 안전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2024년 재난 안전 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신청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방법 이메일(safetykorea.apply@gmail.com)  
※신청서 및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후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문의 안전상황실 032-440-5752

06 지하철 역사 내 열린 박물관 이용하세요

내용 인천시청역 역사에 위치한 ‘열린 박물관’에서 대관 전시를 개최할 개인 및 단체 공모  
기간 7월 1일~12월 31일  
※ 최소 14일~최대 60일 전시 운영 가능  
자격 인천 거주 개인 혹은 인천 소재 단체  
비용 무료  
신청 6월 10일까지  
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문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032-440-6749

6월의 행사

인천 곳곳 다채로운 시설에서 펼쳐지는  
유익하고 알찬 행사와 함께 일상을 누리세요!

송도컨벤시아

2024 인천가구박람회  
6월 6~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송도컨벤시아 1~2홀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02-546-5200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  
6월 19~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금요일 오후 4시)  
송도컨벤시아 1~3홀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02-554-3120

웹·슬림페어 2024  
6월 27~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만 원(사전 등록 시 무료)  
02-6956-6821

미추홀학산문화원

2024년 학산 가족 음악회  
전통 예술 공연  
‘심청가 완창(完勝)’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이야기  
6월 20일 오후 7시  
학산소극장, 무료, 성인 대상  
032-866-3993~4

인천향교 달빛공간 음악회  
달빛 비치는 인천향교에서 즐기는  
음악회와 전통문화 체험  
6월 26일 오후 5시~8시 30분  
무료, 누구나 관람 가능  
032-866-3993~4

2024년 학산 어린이극  
‘제3회 인천 어린이 공연 예술 축제’  
고전 ‘별주부전’을 현대화한 음악극  
6월 29일 오후 2시  
학산소극장, 36개월 이상  
전석 2만 원(미추홀구민 1만 원)  
032-866-3993~4

연수문화원

2024 연수프린지페스티벌  
한여름 밤 청량한 음악의 밴드 공연  
‘블루파프리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며 일상 속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  
6월 26일 오후 7시~8시  
청학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032-821-6229

2024 전통문화예절학교  
예절, 다도,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등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배우는 시간  
6월 12일 오전 10시 모집  
7월 30일~8월 9일  
오전 9시 30분~정오 교육  
※ 기수별 교육 일자 상이  
연수문화원 강좌실  
연수구 초등학교 기수별 15명  
(총 8기수 모집)  
무료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032-821-6229

2024 연수학탐방로드  
‘동춘동·옥련동 탐방’  
해설사와 함께 연수구의 역사, 문화적 장소를 돌아보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  
6월 15일 오전 9시~오후 1시  
연수구 일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032-821-6229

연수문화원 손뜨개 문화 강좌  
손뜨개로 여름 라피아와 모자, 사각 미니 가방 만들기  
7월 3~24일 오전 10시~정오  
연수문화원 강의실  
성인 누구나  
4회 4만 원(재료비 3만 원)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032-821-6229



미추홀도서관

**뉴스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나의 생활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뉴스를 통해 알아보기  
6월 10일 오후 4~6시  
초등 1~3학년  
032-440-6668

**사서 재능 기부 특강  
‘세계 환경의 날, 지구 지키기’**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 하기  
6월 5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2015~2019년생  
032-440-6665

**다가치 그림책과 어울림(3차)**  
미추홀외고 자원봉사자가 다국어로  
그림책을 읽어준 뒤 함께하는 독후 활동  
6월 8일 오후 2~3시  
초등 1~3학년  
032-440-6643

**6월 문화행사 ‘요기조기 음악회’**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지브리 OST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여행)  
6월 8일 오후 5~6시  
시민 누구나  
032-440-6665

**폴레랑스 특강  
‘지혜의 숲, 인문 고전 읽기’**  
고전을 통해 인류 문명의 흐름을  
역사적·사상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덕목 알아가기  
6월 11·18·25일 오후 7~9시  
시민 누구나  
032-440-6666

**동아리 특강  
‘국민 성우와 함께하는 낭만 낭독’**  
그림책 낭독 체험으로 올바른  
스피치와 좋은 목소리 만들기  
6월 13·20·27일 오전 10시~정오  
시민 누구나  
032-440-6666

**다가치 문화와 어울림(1차)**  
이주민 강사의 모국 소개 및 문화 체험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정오  
초등 1~6학년  
032-440-6643

**6월 문화가 있는 날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도서 <벽 타는 아이>를 읽고  
독후 활동 하기  
6월 29일 오전 10시~정오  
초등 1~3학년  
032-440-6665

청라호수도서관

**6월 환경의 달 특강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기후 변화와 물 환경, 일상생활과  
수질 오염의 관계  
6월 13일 오후 2~4시  
성인  
032-563-8044

**푸드-업사이클 공예 ‘보리박 슝클레이’**  
맥주 공정 이후 영양이 살아 있는  
보리박(가루)를 활용한 피부와  
두피 보호 천연 비누 만들기  
6월 15일 오전 10시~정오  
자녀와 보호자 12팀  
032-563-8044

**호수공원 생태 탐방  
‘어린이 숲 생태 놀이 교실’**  
청라호수공원 주변의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  
6월 20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초등 4~6학년  
032-563-8044

**실버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6월 테마 환경의 달을 맞아 자연 탐구 관련 그림책을  
읽고 나비 만들기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조)부모와 4~7세 유아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

**2024년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제공  
9월 4일까지  
초등 1~3학년  
032-562-1674

**사서 재능 기부  
‘사서와 함께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환경에 관한 그림책을 읽고 고체 샴푸바 제작  
6월 7일 오후 4시~5시 30분  
초등 1~3학년  
032-562-1675

**6월 문화행사 ‘양말목 도어벨 만들기’**  
양말목을 활용해 행운의 도어벨 제작  
6월 14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초등 1~3학년  
032-562-1675

**6월 문화행사 ‘그림책 큐브 스토리텔링’**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나만의 그림책 큐브 제작  
6월 20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초등 4~6학년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

**6월 문화행사 ‘업사이클링 환경 놀이’**  
환경의 달 맞이 환경 교육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진행  
6월 9일 오전 10시~정오  
초등 1~3학년  
032-746-9139

**작가와의 만남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  
명화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광기의 역사 이야기  
6월 13·20일 오전 10시~정오  
성인  
032-746-9139

우리가  
이 땅 위의  
이름들을




글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계양구는 ‘계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겼다. 이 이름은 고려 고종 2년(1215년), 이 지역의 군사와 행정 업무를 맡았던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가 계양도호부로 바뀌면서 처음 등장한다. ‘계양’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계수나무와 회양나무’이고, 이곳 산에 이들 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계수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기에 이곳 산에 많을 수가 없으며, 이전에 많았다는 기록도 없다. 회양나무는 실제로 이곳에 무척 많았던 나무이다. 하지만 이곳 산에 계수나무가 없는 만큼 회양나무 때문에 계양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계양의 뜻을 알려면 국어사(國語史) 차원에서 우리말 땅 이름이 한자어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계양(桂陽)’의 ‘桂’는 우리 옛말 ‘들’을 한자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고구려어에서 나온 ‘들’은 ‘높은 곳’이나 산(山)이라는 뜻이다. 하늘에 있는 ‘달<月>’도 중세국어까지는 ‘들’이라 했고, 오늘날 ‘(매)달다’라는 말도 이때는 ‘들다’라고 했다. 하늘의 달이나 어떤 곳에 매다는 것이나 모두 ‘높은 곳’이라는 뜻과 이어져 있다. 국어학자인 인천대학교 김병욱 명예교수는 사전(字典)인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을 근거로 “‘桂’는 ‘月’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 글자이며, 계양에서는 ‘들’을 나타낸 글자”라고 설명한다. ‘桂’는 ‘들’을 나타낸 ‘한자 차용(借用 표현)’인 것이다.

# 桂陽

여섯 번째 땅 이름  
[계양·계양구]

‘양(陽)’은 땅 이름에서 흔히 ‘(바다나 강 같은) 물의 북쪽에 있는 땅’이나 ‘높은 곳’을 뜻할 때 쓴 글자이다.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漢陽)’의 ‘陽’이 앞 뜻의 좋은 예다. 조선시대에 한양의 행정구역 범위는 ‘漢水北 北漢南(한수북 북한남)’이라 해서 ‘한강(한수)의 북쪽, 북한산의 남쪽’이었다. 이처럼 물의 북쪽 땅이라 ‘陽’이라 한 것이다. 계양의 ‘양’은 뒤, 곧 ‘높은 곳’의 뜻으로 쓰였다. “高丘曰陽(고구왈양 : 높은 언덕을 ‘陽’이라고 한다)”이라는 자전의 풀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계양은 ‘들’을 한자로 바꾼 ‘계桂’와 ‘높은 곳’을 뜻하는 ‘양陽’이 겹친 이름이다. 이곳에 계양산이 있으니 ‘높은 산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한편 계양산은 이 일대가 ‘수주’로 불리던 시절에는 수주악(樹州岳)이라 했고, 안남도호부 시절에는 안남산이라 불리다가, 계양도호부가 생기면서 계양산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조선시대 고지도에 나오는 계양산과 부평 관아



‘절차상으로 전쟁 상태’(technically at war)  
해외 언론이 한반도 기사를 다룰 때 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라는 의미지만 ‘전쟁’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가 정전 71주년입니다. 그동안 평화에 익숙해져서인지 전쟁은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절차상 전쟁 상태’에 숨겨진 함의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최근에도 오물 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전단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소식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합니다.  
인천은 특히 ‘절차상의 전쟁 상태’와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현재진행형 전쟁 상태’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실체적 증거입니다. 이 대목에서 절실히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국내 평화학 박사 1호인 정주진 박사는 저서 <평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는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문화적 폭력’ 등으로 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합니다. 이중 전쟁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직접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려면 가장 먼저 전쟁과 무력 충돌이라는 직접적 폭력의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디어진 안보의식 때문일까요. 당연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좀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유교전쟁”(6·25전쟁)은 종교전쟁인가요?”란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다는 경험담이 한 때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다는, 들어보긴 했는데 눈으로 읽은 적 없어 빈약해진 문해력 탓으로 돌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영령들을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인천> 6월호의 표지에는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며 날로 희석되는 안보 의식을 경계하자는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은 평화를 지키는 일에 밤, 낮이 따로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서해와 접경지역을 품어 안보 1번지로 꼽히는 인천에는 48개의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나들이 삼아 가족들과 함께 이들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仁 · 生 · 네 · 컷

인천을 지키고 시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인천에서의 행복한 삶을 네 컷 사진에 담는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을 통해 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진으로 추억을 선물합니다.

참여 윤명수·안지현 부부(연수구 송도국제대로) | 사진 최준근 포토디렉터



인천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평생의 반려자, 아내 역시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 경찰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단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의 6월, 6·25 전쟁의 대전환점이 됐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불빛을 깜빡여 월미도 상륙을 알렸던 팔미도 등대 조형물이 특히 반가웠습니다. 인천의 해양 경찰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된 바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 멀리 팔미도 등대가 눈에 들어오면 ‘집에 도착했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매일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또 모든 해양 경찰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도시 인천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호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천사진관 ‘仁·生·네·컷’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또는 독자께서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촬영할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짧은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될 경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멋진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신청** gmi2024@naver.com